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9월호

Contents

| | |
|--------------------------|----|
| I. 한일경제 동향 | 2 |
| 1. 한일 무역 동향 | 2 |
|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5 |
|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6 |
|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 9 |
| 1. 일본 무역 동향 | 9 |
|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2 |
|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4 |
|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19 |
|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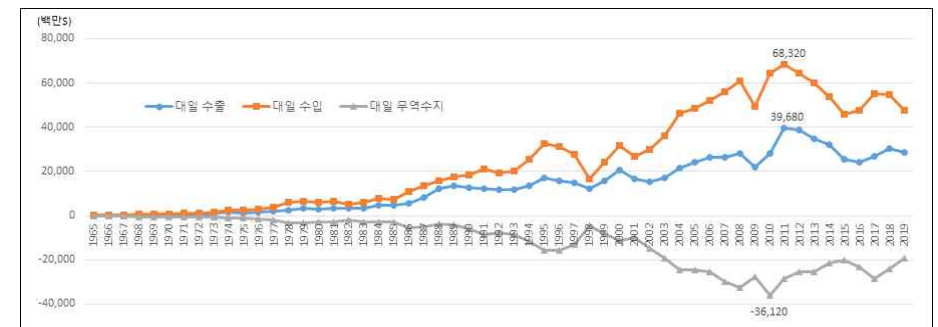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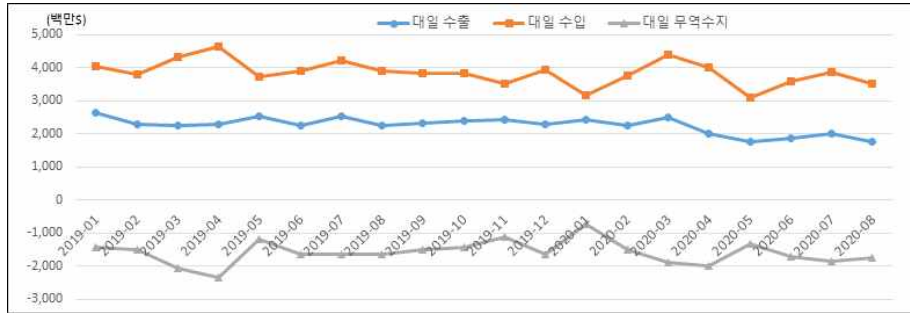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 및 7월에는 전월 대비 약간 증가, 8월에는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COVID-19 발발 이후 최근 6월과 7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다가 8월에는 감소함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COVID-19 발발 이후 최근 6월과 7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다가 8월에는 감소함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감소, 6월과 7월에는 증가, 8월에는 감소함

□ 한일 무역의 2020년 8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對日)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수출의 감소폭이 큼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8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39,572 | -10.1 | 35,735 | -15.8 | 3,837 |
| 일본 부분 | 1,766 | -21.3 | 3,515 | -9.6 | -1,749 |
| 일본 비중 | 4.5 | | 9.8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8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10.1%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21.3% 감소하여 17.7억 달러가 됨

- 2020년 8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5.8%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9.6% 감소하여 35.2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38.4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여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9.8%였음

- <표2> 및 <표3>은 주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품목의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쪽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더 많았음

〈표2〉 한국의 2020년 8월 주요 대일(對日) 수출품목

| 순위 | 품목명 | 2019년 8월(백만\$, %) | | | 2020년 8월(백만\$, %) | | |
|----|-----------|-------------------|-------|--------|-------------------|-------|--------|
| |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2,243 | -6.9 | -1,644 | 1,766 | -21.3 | -1,749 |
| 1 | 철강제품 | 339 | 9.8 | -136 | 215 | -36.6 | -122 |
| 2 | 광물성연료 | 304 | -28.9 | 246 | 200 | -34.0 | 177 |
| 3 | 정밀화학제품 | 170 | 7.2 | -230 | 165 | -3.2 | -146 |
| 4 | 금속광물 | 80 | 5.2 | 35 | 121 | 50.1 | 71 |
| 5 | 산업용전자제품 | 119 | 4.9 | -111 | 116 | -2.3 | -70 |
| 6 | 전자부품 | 136 | -1.9 | -398 | 109 | -19.5 | -503 |
| 7 | 농산물 | 102 | 7.5 | 83 | 85 | -16.4 | 67 |
| 8 | 석유화학제품 | 123 | -38.6 | -169 | 75 | -39.2 | -138 |
| 9 | 수송기계 | 92 | -2.6 | -98 | 59 | -36.2 | -97 |
| 10 | 기계요소공구및금형 | 92 | 7.4 | -38 | 58 | -36.5 | -35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8월 주요 대일(對日) 수입품목

| 순위 | 품목명 | 2019년 8월(백만\$, %) | | | 2020년 8월(백만\$, %) | | |
|----|---------|-------------------|-------|--------|-------------------|-------|--------|
| |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3,887 | -8.2 | -1,644 | 3,515 | -9.6 | -1,749 |
| 1 | 전자부품 | 533 | -2.3 | -398 | 612 | 14.6 | -503 |
| 2 | 정밀기계 | 284 | -28.9 | -247 | 357 | 26.0 | -329 |
| 3 | 철강제품 | 475 | -13.2 | -136 | 337 | -29.0 | -122 |
| 4 | 정밀화학제품 | 399 | -0.2 | -230 | 311 | -22.1 | -146 |
| 5 | 플라스틱제품 | 221 | 17.2 | -158 | 214 | -3.5 | -159 |
| 6 | 석유화학제품 | 292 | -14.6 | -169 | 213 | -27.0 | -138 |
| 7 | 기초산업기계 | 175 | -14.6 | -101 | 205 | 17.5 | -152 |
| 8 | 산업용전자제품 | 229 | -4.9 | -111 | 186 | -18.8 | -70 |
| 9 | 수송기계 | 190 | 7.5 | -98 | 156 | -17.7 | -97 |
| 10 | 산업기계 | 141 | -13.2 | -67 | 133 | -5.4 | -81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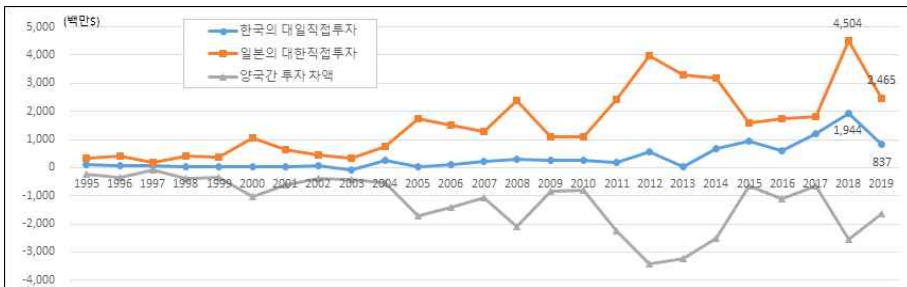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금속광물이 50.1%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39.2%, 철강제품이 36.6%, 기계요소공구및금형이 36.5%, 수송기계가 36.2%, 광물성연료가 34.0%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정밀기계가 26.0%, 기초산업기계가 17.5%, 전자부품이 14.6%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철강제품이 29.0%, 석유화학제품이 27.0%, 정밀화학제품이 22.1% 감소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0년 5월 | | 2020년 6월 | | 2020년 7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전체(억\$) | 13,468 | 2,740 | 29,737 | 47,762 | 20,771 | 963 |
| 한국 부분(억\$) | 15 | 50 | 290 | 71 | 73 | 52 |
| 한국 비중(%) | 0.1 | 1.8 | 1.0 | 0.1 | 0.4 | 5.4 |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7월 8일, 8월 11일,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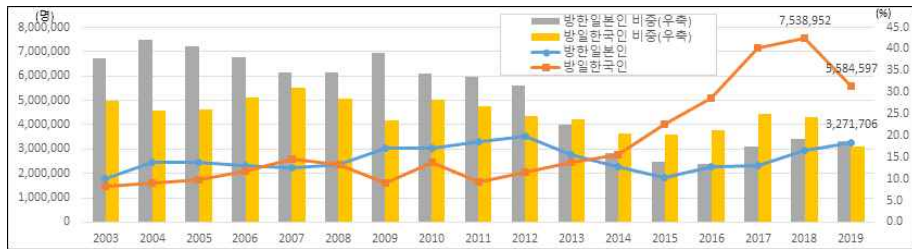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6월에는 29,737억 엔(실행 56,712; 회수 26,975)이었으나, 7월에는 20,771억 엔(실행 55,517; 회수 34,746)으로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6월 290억 엔(실행 444; 회수 154)에서 7월 73억 엔(실행 222; 회수 149)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0.4%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6월에는 47,762억 엔(실행 72,541; 회수 24,778)이었으나, 7월에는 963억 엔(실행 63,391; 회수 62,427)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71억 엔(실행 72; 회수 1)에서 52억 엔(실행 59; 회수 7)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본 전체 대내직접투자가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국 비중은 0.1%에서 5.4%로 증가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일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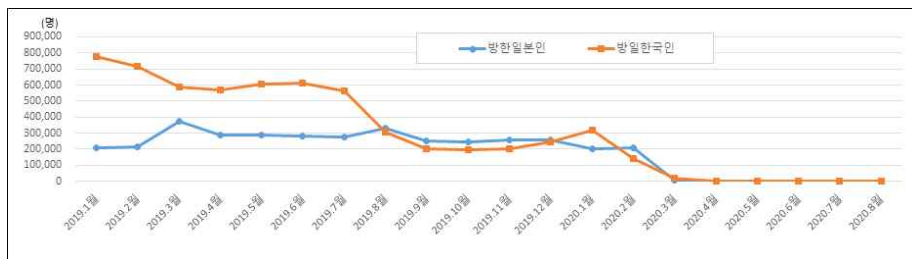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5월부터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300명, 8월 700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8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8월 상황

| 한국방문 | 외국인 (명, %) | | | 일본방문 | 외국인 (명, %) | | |
|---------------|------------|---------|-------|--------|------------|---------|-------|
| | 2019년8월 | 2020년8월 | 증감률 | | 2019년8월 | 2020년8월 | 증감률 |
| 전체 (재외한국인 포함) | 1,586,299 | 68,797 | -95.7 | 전체 | 2,520,134 | 8,700 | -99.7 |
| 방한 일본인 | 329,652 | 1,275 | -99.6 | 방일 한국인 | 308,730 | 700 | -99.8 |
| 일본인 비중 | 20.8 | 1.9 | | 한국인 비중 | 12.3 | 8.0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68,79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5.7%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27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6%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8월 20.8%에서 2020년 8월 1.9%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8,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7%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8%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8월 12.3%에서 2020년 8월 8.0%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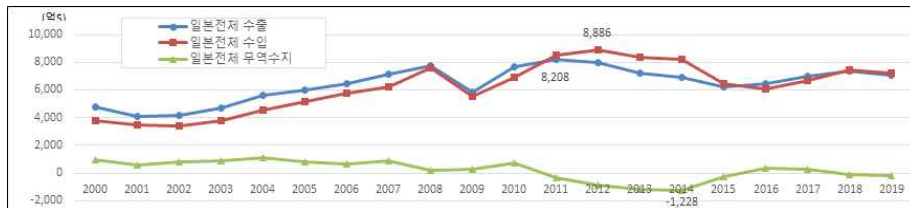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8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8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8월 상황

| | 2019년 8월 | 2020년 8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6,138,720 | 5,233,105 | -14.8 |
| 수입(백만¥, %) | 6,290,930 | 4,984,504 | -20.8 |
| 수지(백만¥, %) | -152,210 | 248,601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광물성연료, 선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8% 감소하여 5조 2,331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0.8% 감소하여 4조 9,84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1,522억 엔의 적자였으나, 8월에는 2,486억 엔의 흑자였음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8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8월 지역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수입(백만¥, %) | | | 수지(백만¥,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지금액 | 증감률 |
| 총액 | 5,233,105 | 100.0 | -14.8 | 4,984,504 | 100.0 | -20.8 | 248,601 | - |
| 아시아 | 3,079,101 | 58.8 | -7.8 | 2,577,955 | 51.7 | -11.2 | 501,146 | 14.9 |
| 중국 | 1,261,632 | 24.1 | 5.1 | 1,319,252 | 26.5 | -7.0 | -57,620 | -73.7 |
| 홍콩 | 271,781 | 5.2 | -4.0 | 5,664 | 0.1 | -26.3 | 266,117 | -3.4 |
| 대만 | 365,840 | 7.0 | 0.5 | 208,705 | 4.2 | -11.6 | 157,135 | 23.0 |
| 대한민국 | 364,045 | 7.0 | -13.8 | 196,524 | 3.9 | -18.3 | 167,521 | -7.9 |
| 싱가포르 | 119,643 | 2.3 | -26.1 | 64,074 | 1.3 | 7.0 | 55,569 | -45.6 |
| 태국 | 190,452 | 3.6 | -31.3 | 183,074 | 3.7 | -18.3 | 7,378 | -86.2 |
| 말레이시아 | 110,769 | 2.1 | -0.9 | 122,995 | 2.5 | -12.7 | -12,226 | -58.0 |
| 인도네시아 | 54,680 | 1.0 | -55.8 | 120,466 | 2.4 | -23.3 | -65,786 | 96.1 |
| 필리핀 | 76,433 | 1.5 | -14.9 | 81,116 | 1.6 | -16.9 | -4,683 | -39.7 |
| 베트남 | 147,466 | 2.8 | -6.6 | 186,365 | 3.7 | -7.6 | -38,899 | -11.3 |
| 인도 | 76,371 | 1.5 | -21.8 | 36,987 | 0.7 | -21.8 | 39,384 | -21.9 |
| 대양주 | 133,952 | 2.6 | -20.2 | 286,420 | 5.7 | -38.8 | -152,468 | -49.2 |
| 호주 | 97,665 | 1.9 | -20.9 | 239,344 | 4.8 | -43.5 | -141,679 | -52.7 |
| 뉴질랜드 | 13,690 | 0.3 | -39.8 | 19,787 | 0.4 | -12.1 | -6,097 | - |
| 북미 | 998,316 | 19.1 | -21.2 | 660,535 | 13.3 | -20.2 | 337,781 | -23.2 |
| 미국 | 936,867 | 17.9 | -21.3 | 563,764 | 11.3 | -21.9 | 373,103 | -20.3 |
| 캐나다 | 61,450 | 1.2 | -19.7 | 96,234 | 1.9 | -8.0 | -34,784 | 23.9 |
| 중남미 | 139,174 | 2.7 | -46.6 | 236,221 | 4.7 | -8.1 | -97,047 | - |
| 서유럽 | 603,027 | 11.5 | -15.3 | 647,465 | 13.0 | -22.2 | -44,438 | -63.0 |
| 독일 | 145,577 | 2.8 | -22.9 | 158,353 | 3.2 | -31.2 | -12,776 | -68.9 |
| 영국 | 86,661 | 1.7 | -27.8 | 52,459 | 1.1 | -28.8 | 34,202 | -26.1 |
| 프랑스 | 43,268 | 0.8 | -28.8 | 68,016 | 1.4 | -34.4 | -24,748 | -42.4 |
| 네덜란드 | 85,661 | 1.6 | -10.5 | 19,813 | 0.4 | -24.8 | 65,848 | -5.1 |
|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 117,713 | 2.2 | -12.2 | 140,649 | 2.8 | -30.0 | -22,936 | -65.6 |
| 중동 | 103,976 | 2.0 | -42.8 | 376,854 | 7.6 | -48.0 | -272,878 | -49.8 |
| 아프리카 | 57,846 | 1.1 | -24.9 | 58,405 | 1.2 | -25.3 | -559 | -52.7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8%, 수입의 51.7%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5,011억 엔으로 14.9%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4.1%, 수입의 26.5%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576억 엔으로 73.7%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7.0%, 수입의 4.2%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571억 엔으로 23.0%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0%, 수입의 3.9%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675억 엔으로 7.9% 감소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7.9%, 수입의 11.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3,731억 엔으로 20.3% 감소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22.9%, 수입이 31.2%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27.8%, 수입이 28.8%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8월 품목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 수입(백만¥, %) |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 총액 | 5,233,105 | 100.0 | -14.8 | -14.8 | 4,984,504 | 100.0 | -20.8 | -20.8 |
| 1 식료품 | 64,685 | 1.2 | 13.1 | 0.1 | 523,027 | 10.5 | -10.8 | -1.0 |
| 2 원료품 | 75,860 | 1.4 | -6.4 | -0.1 | 343,159 | 6.9 | -14.1 | -0.9 |
| 3 광물성연료 | 37,122 | 0.7 | -68.8 | -1.3 | 757,272 | 15.2 | -45.1 | -9.9 |
| 4 화학제품 | 662,907 | 12.7 | -8.2 | -1.0 | 538,756 | 10.8 | -15.7 | -1.6 |
| 5 원료별제품 | 586,659 | 11.2 | -14.1 | -1.6 | 455,759 | 9.1 | -17.2 | -1.5 |
| 6 일반기계 | 986,284 | 18.8 | -16.8 | -3.2 | 529,587 | 10.6 | -6.9 | -0.6 |
| 7 전기기기 | 1,052,695 | 20.1 | -5.5 | -1.0 | 824,627 | 16.5 | -5.6 | -0.8 |
| 8 수송용기기 | 1,034,574 | 19.8 | -23.2 | -5.1 | 199,133 | 4.0 | -39.1 | -2.0 |
| 9 기타 | 732,318 | 14.0 | -11.7 | -1.6 | 813,183 | 16.3 | -15.9 | -2.5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9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식료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한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항목의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는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수송용기기가 23.2%, 일반기기가 16.8%, 원료별제품이 14.1% 등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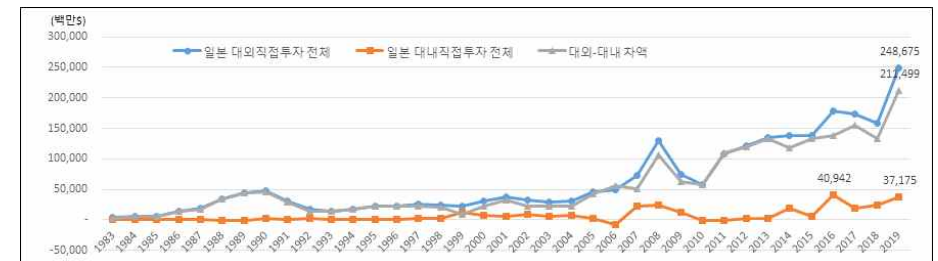
- 수송용기기에 속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륜자동차, 항공기류, 선박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19.4%, 21.0%, 15.1%, 32.2%, 57.3%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가 45.1%, 기타가 15.9%, 수송용기기가 39.1% 등으로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의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52.5%, 12.7%, 44.2%, 36.9%, 42.4% 감소하였음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7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와 대내직접투자 모두 플러스였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았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7월 상황

| | 대외직접투자(억 엔, %) | | 대내직접투자(억 엔, %) | |
|-------|----------------|-------|----------------|-------|
|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 합계 | 20,771 | 100.0 | 963 | 100.0 |
| 아시아 | 4,895 | 23.6 | -398 | -41.3 |
| 중국 | 1,576 | 7.6 | -68 | -7.1 |
| 홍콩 | 394 | 1.9 | -547 | -56.8 |
| 대만 | 299 | 1.4 | 30 | 3.1 |
| 한국 | 73 | 0.4 | 52 | 5.4 |
| 싱가포르 | 1,084 | 5.2 | 241 | 25.0 |
| 태국 | 410 | 2.0 | -104 | -10.8 |
| 인도네시아 | 272 | 1.3 | -12 | -1.2 |
| 말레이시아 | 106 | 0.5 | 0 | 0.0 |
| 필리핀 | 125 | 0.6 | -1 | -0.1 |
| 베트남 | 251 | 1.2 | 0 | 0.0 |
| 인도 | 279 | 1.3 | 4 | 0.4 |
| 북미 | 783 | 3.8 | 443 | 46.0 |
| 미국 | 535 | 2.6 | 437 | 45.4 |
| 캐나다 | 249 | 1.2 | 7 | 0.7 |
| 중남미 | 847 | 4.1 | -549 | -57.0 |
| 대양주 | 757 | 3.6 | -41 | -4.3 |
| 호주 | 807 | 3.9 | -36 | -3.7 |
| 뉴질랜드 | -50 | -0.2 | 1 | 0.1 |
| 유럽 | 13,650 | 65.7 | 1,507 | 156.5 |
| 독일 | 493 | 2.4 | 479 | 49.7 |
| 영국 | 595 | 2.9 | -293 | -30.4 |
| 프랑스 | 166 | 0.8 | 450 | 46.7 |
| 네덜란드 | 415 | 2.0 | 319 | 33.1 |
| 중동 | 73 | 0.4 | 0 | 0.0 |
| 아프리카 | -233 | -1.1 | 0 | 0.0 |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0,771억 엔(실행 55,517; 회수 34,746)으로 플러스였고, 전월 29,737억 엔 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유럽(65.7%)과 아시아(23.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미(3.8%), 중남미(4.1%), 대양주(3.6%)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스위스에 대한 투자가 11,233억 엔(54.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1,576억 엔(7.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963억 엔(실행 63,391; 회수 62,427)으로 플러스였지만, 전월 47,762억 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플러스로 큰 국가는 독일(479억 엔), 프랑스(450억 엔), 미국(437억 엔), 네덜란드(319억 엔) 등이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마이너스로 큰 국가는 케이만제도(-577억 엔), 홍콩(-547억 엔), 영국(-293억 엔) 등이었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9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9월 24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 | 2018년 | 2019년 | 2019년 10-12월 | 2020년 1-3월 | 2020년 4-6월 | 2020년 5월 | 2020년 6월 | 2020년 7월 | 2020년 8월 |
|----------------------------------|------------------|------------------|------------------|------------------|------------------|------------------|------------------|------------------|--------------------|
|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 0.3 | 0.7 | -0.7 | -1.8 | -9.9 | | | | |
|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 2.3 | 0.9 | 0.6 | 0.6 | -3.5 | -4.2 | -4.0 | -3.1 | |
| <민간설비투자> 자본재투자(수출기계제외) | 3.9 | -5.8 | -9.5 | -5.7 | -12.7 | -21.2 | -9.1 | -14.4 | |
|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 94.2 -2.3 | 90.5 -4.0 | 86.5 -9.4 | 86.3 -9.9 | 80.0 -12.4 | 80.9 -12.0 | 79.0 -12.8 | 82.8 -11.3 | |
|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 -8.4 | 10.1 | 3.9 | 2.5 | 4.2 | 9.9 | -0.3 | 12.7 | |
|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 1.7 2.8 | -4.3 -1.1 | -3.8 -4.5 | -5.5 -7.0 | -25.1 -4.8 | -27.3 -14.6 | -26.9 -0.8 | -21.9 P -14.0 | P -14.9 P -11.6 |
|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 1.1 | -3.0 | -6.8 | -4.5 | -19.8 | -26.3 | -18.2 | -15.5 | |
| <법인경상이익-계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 3.7 | -3.5 | -4.6 | -28.4 | -46.6 | | | | |
|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 8,235 -2.0 | 8,383 1.7 | 2,211 6.8 | 2,164 12.9 | 1,837 -11.4 | 314 -54.8 | 780 6.2 | 789 -1.6 | 667 -1.6 |
|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 2.4 | 2.4 | 2.3 | 2.4 | 2.8 | 2.9 | 2.8 | 2.9 | |
|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조정기준) | 2.6 1.0 | 0.2 0.5 | 0.2 0.5 | 0.5 0.5 | -2.3 0.1 | -2.8 0.1 | -1.6 0.1 | -0.9 0.3 | -0.5 0.2 |
| <금융> 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 22,310 110.40 | 21,697 108.99 | 23,041 108.72 | 21,808 108.79 | 20,784 107.61 | 20,543 107.31 | 22,486 107.56 | 22,529 106.78 | 22,901 106.04 |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8월 및 9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일부 정체 모습도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4.1% 감소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감소가 멈추는 조짐이 보이며, 소비자 심리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사회경제 활동 단계를 상향시켜감에 따라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 가전판매는 증가하고 있음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 경우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정체 모습이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소비는 일부 정체 모습도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음
 - 향후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개인소비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약세 기조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설비투자는 2020년 4-6월기에 전기 대비 6.3%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 감소, 비제조업이 6.8%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観(전국기업단기경세관측조사) 6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에서는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감소, 전체산업에서는 증가가 예상됨
 - 短観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과잉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감소하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최근 약세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7월에 전월 대비 4.8% 증가하여 연율 82.8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전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7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0% 증가, 8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 대비 16.9% 증가, 7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1.1%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전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회복하고 있으며,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고,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됨
 -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미국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EU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감소가 멈추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을 살펴보면, 8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9.7%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상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감소가 멈추고 있음
 -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임
 - 7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의 증가로 흑자로 돌아섰음
 -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8.7%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1.5%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8월은 전월 대비 4.0% 증가, 9월은 전월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하락이 멈추고 있는 중이며,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4-6월기 조사)' 에 따르면 2020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46.6% 감소, 전기 대비 29.7% 감소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48.7% 감소,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45.5% 감소로,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전년 대비 35.4% 감소,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79.6% 감소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6.4%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1.4%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29.6%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7.7%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크게 저하되었고, 9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에 비해 약간 신중한 전망으로 나타났음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나타났는데, 7월 789건, 8월 667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7월 1,008억 엔, 8월 724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7월에 전월 대비 0.1% 높아져 2.9%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함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규 구인 수도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최근 하락이 멈추는 조짐이 보임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하락이 멈추는 조짐이 보이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하락이 멈추는 조짐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상태임
 -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8월 국내기업물가는 소비세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고, 하계 전력요금 조정 후에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음
 -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 유아교육·보육무상화, Go To Travel 사업(정부의 여행 지원 사업)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8월에는 전월 대비 1.4% 포인트 상승하여 75.1%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소비세 인상, 유아교육·보육무상화, Go To Travel 사업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엔고 추세를 보임
 - 주가는 22,800엔대에서 23,500엔대까지 상승한 후 23,300엔대까지 하락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6엔대에서 105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6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다시 104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7%대에서 -0.04%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6.7%(8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11.5%(8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8.6%(8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9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9월 24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면서 고용의 확보, 사업의 계속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COVID-19로 인해 명확해진 디지털화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서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정책 목표와 그 계획 등을 명확히 한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책정함
- 앞으로도 계속,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및 제2차 보정예산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함과 더불어, 국내외 감염증 상황 및 경제 동향,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주저함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대만 등 5개국·지역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가 일부 재개되는 것이 정해짐(아사히 신문, 20.9.1)
 -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9월 1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비즈니스 왕래가 일부 재개된다고 발표
 - 대상은 주재원이나 기능실습생 등 장기 체류자로 출입국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뒤 입국 후에도 2주간 대기를 요구함
- 일본, 호주, 인도 3개국은 공급망 강화로 연내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산케이 신문, 20.9.1)
 - 일본, 호주, 인도 3개국은 9월 1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서플라이체인(부품의 공급·조달망) 강화의 연계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도 참가를 호소할 예정
 - 회합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COVID-19 유행에 의한 경제위기 등을 근거로 서플라이체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일본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장관은 COVID-19 감염 확대로 자동차 부품과 의료 관련품의 공급이 정체된 것 등을 배경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고 설명하고,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 생산 거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총무성은 중소기업의 텔레워크 정보 누설 대책 안내서 작성(NHK, 20.9.11)
 - COVID-19 대책으로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정보 시큐리티 확보를 위해, 총무성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누설을 막는 대책 안내서를 새롭게 작성함
 - 이 안내서는 시큐리티 대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텔레워크를 도입할 때 안적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무성이 정리함
 - 텔레워크 방식에 대해 사용하는 컴퓨터가 회사에서 지급되는지 개인이 소유하는지 등 환경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마다 사이버 공격을 상정해 우선되는 중요한 대책을 나타냄
 - 이 외 텔레워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3개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설정 시의 주의점을 해설하고 있음
 - 텔레워크는 COVID-19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PC나 화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성이 미비하면 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주한 일본 도미타 대사는 한국 통일부장관 면담에서 대북제재 이행 요청(NHK, 20.9.1)
 - 주한 일본 도미타 대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9월 1일 처음 만났음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라며 물물교환 교역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의 협력을 구함
 - 도미타 대사는 한일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에 일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계속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요청하였음
 - 또한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ASEAN+3 외무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확인(닛케이신문, 20.9.9)
 - 일본, 한국,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9월 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ASEAN+3 외무장관 회의를 열었음
 - 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확인하고 COVID-19 대책의 지원도 이야기함
 -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일본의 독자적인 공헌으로서 「ASEAN 대응 기금」에 100만달러를 거출한다고 전했음
 - ASEAN+3 외무장관 회의 후, 일-ASEAN 외무장관회의도 개최했으며,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의견 교환했고,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홍콩 정세도 의제에 올랐음
- 자민당 새 총재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선출(산케이신문, 20.9.14)
 - 아베 신조 총리의 후계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음
 - 스가 씨의 총재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였던 내년 9월까지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도 입후보했지만 스가 씨에 미치지 못했음
- 99대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중참의원 지명선거로 선출(NHK, 20.9.16)
 - 아베 내각은 9월 16일 오전 총사퇴했으며, 이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됐음

- 그 결과 스가 요시히데 총재가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지지를 받아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음
 - 한편 오후 1시 40분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총리대신 지명선거가 실시되어 스가 총재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99대 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음
 - 스가 총리는 중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총리대신으로 지명된 후 국회 내에 있는 각 교섭단체의 대기실을 인사차 찾아갔으며, 아베 전 총리도 각 교섭단체의 대기실을 방문해 퇴임 인사를 했음
- 한중일 3개국과 ASEAN 각국은 9월 18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를 열었음(NHK, 20.9.18)
 - COVID-19의 감염 확대로 타격을 받은 각국의 경제 정세나 향후 취해야 할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음
 -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올해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역내경제 회복 조짐을 환영하는 한편,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의 불확실한 궤도에 비추어 계속되는 하방 리스크 조짐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음
 - 또한, 역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고 하여 각국이 만전의 대응을 취할 것을 확인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9월 24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전화 협의를 실시(마이니치신문, 20.9.25)
 - 스가 총리는 전 정용공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전했음
 -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
 - 한일 정상의 전화 협의는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이며,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음
 - 두 정상은 COVID-19 대책에서도 협력하고, 한일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가속하는 것도 확인했음
 - 한일 정상간 협의는 2019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 회의에 맞춰 회담한 이후로 9개월만임
 - 한일 문화교류 최대 규모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Tokyo’가 9월 26일 개최(산케이신문, 20.9.27)
 - 2009년부터 매년 서울과 도쿄 양쪽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했으며, 올해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음
 - 이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K팝 그룹 콘서트와 시청자 참가 퀴즈 대회가 전송되었음

- 온라인 출점 부스에서는 양국 젊은이들이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교류회도 열림



출처: <http://www.nikkan-omatsuri.jp/>

- 11월에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산케이신문, 20.9.25)
 - 일한경제협회는 양국 기업 간부들이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11월 27일에 연다고 발표
 - 도쿄와 서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하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 COVID-19 이후를 내다본 한일 경제연계의 기본방향이 테마임
 - 1969년부터 매년 한일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었음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일본항공(JAL) 산하 저가항공사인 집에어도쿄(ZIPAIR Tokyo, 지바현 나리타시)는 9월 7일 나리타-서울 선을 화물 전용편으로 첫 취항시킨다고 발표(닛케이신문, 20.9.7)
 - 집에어는 9월 12일부터 주 5회 왕복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상품과 기계부품 등을 실어 나름
 - 비즈니스 고객의 수요 등을 전망할 수 있는 것으로, 9월 중에도 여객편으로서의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밝혔음
 - 집에어는 당초 7월에 서울 노선을 여객편으로 취항시킬 예정이었으나 COVID-19 감염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으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바 있음
 - 한일 간의 수송에 더하여 한국에서 출발하는 기계부품 등을 일본을 경유해 북미에 운반할 목적의 이용도 전망하고 있음

- COVID-19로 서플라이체인이 흔들리자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닛케이신문, 20.9.9)
- 일본 국내에의 생산 회귀를 지원하는 일본정부 보조금에 지원이 쇄도하여 10월 채택 예정인 1600억엔의 경쟁률은 11대 1이었음
- 중국 등 특정국에 조달처를 의존하는 리스크를 실감한 기업이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케이스가 눈에 띈
- 「서플라이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은 특정 나라에 생산 거점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 제품·소재가 대상인데, 채택된 것으로는 마스크나 의약품이 많고, 보조 상한은 150억엔으로 일본국내 거점 정비비용의 일정 비율을 냄
- 의약품 원약 메이커인 에이스재팬(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은 선행 심사에서 채택된 기업 중 하나로 지금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료를 수입하고 있었지만, 21년 여름에 야마가타현에서 공장 건설에 착공해 원료로부터의 일괄 생산을 시작함
- 아이리스오야마(센다이시)는 미야기현 내에서의 마스크 생산에 보조금을 활용
- 쇼와글로브(효고현 히메지시)는 고무제의 의료용 일회용 장갑을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했지만, 보조금을 사용하여 카가와현에 신공장을 만들고 23년 봄에 일본 국내 생산을 시작해 지금 수입분의 10% 정도를 조달함
- 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국내 입지 추진 보조금」은 제1차 모집으로 약 750건의 응모가 있어, 약 250건(약 2000억엔)을 채택했으나, 당시 엔고 환경으로 일본 국내 생산의 코스트 증가가 눈에 띄어 일과성 대처로 끝났음
- 이번 COVID-19 재난이 지진 재해 시와 다른 점은 미중 대립 등으로 경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 있음
- 와세다대학의 토도 야스유키 교수는 원래 코로나 전부터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횡행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쇼크는 한층 더 증폭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채택된 기업의 담당자는 보조금이 없어도 일본 국내 생산은 결정하고 있었다고 밝힘
- 이번 보조금의 용도는 해외 거점을 닫고 일본 국내로 돌아오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유사시의 조달 혼란 등을 염려해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
- 인건비의 고조 등으로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의 강점은 희미해지고 있음
- 아이리스오야마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도 마스크 생산에 나서는데,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거점을 세계 각지로 분산하는 전략
- 토도 교수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대처법은 보다 다양한 세계화여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 상무부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에 대한 규제 시행일인 9월 15일이 다가오면서 한-일-대만 등에서 2.8조엔의 부품공급이 정지될 리스크(닛케이신문, 20.9.10)
-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 시행이 15일로 다가오면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일본, 대만, 한국 기업만으로도 2조8000억엔 규모의 부품이 공급 중단 리스크에 노출됨
- 미국 상무부는 8월 미국의 제조장치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외국산 반도체라도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9월 15일 0시(미국 동부시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됨
-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는 미국제의 반도체 설계 지원 툴(EDA)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기간 부품인 반도체를 외부 조달하지 못하게 해 스마트폰과 휴대전화 기지국 생산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
-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이나 기지국은 만들 수 없고, 전지와 회로기관 등 반도체 이외의 부품에서도 화웨이와 고액의 거래가 멈출 수도 있음
- 영국 조사회사 옴디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 시니어디렉터는 한-일-대만의 화웨이 부품 공급이 2조8000억엔 규모라고 시산
- 국가별로 영향이 큰 것이 화웨이를 위한 부품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 기업들로 그 중에서도 소니의 경우 화웨이용 등에 공급하는 화상 센서는 큰 수입원이었는데, 이에 따라 소니는 미국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센서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 중
- 거래가 끊기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 대체 납품처를 찾는 움직임도 물밑에서는 시작됨
- 액정 패널 대기업인 재팬 디스플레이(JDI)는 중국의 스마트폰 대기업인 OPPO와 샤오미, vivo 등 다른 대기업 메이커에 대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 소프트뱅크그룹은 영국 반도체 개발회사 Arm을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매각한다고 발표(NHK, 20.9.14)
- Arm은 소프트뱅크그룹이 4년 전 약 3조 3000억엔을 들여 인수한 세계적인 반도체 개발회사로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각 총액은 최대 약 400억달러, 일본 엔으로 4조 2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 이 가운데 2조 2000억엔 가량은 엔비디아 주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그룹은 엔비디아 주식의 6.7%에서 8.1% 정도를 보유할 전망이다
- AI(인공지능)에 강점을 가진 엔비디아는 Arm의 기술을 활용해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임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등장하는 한국 치킨이 인기(아사히신문, 20.9.13)
 - COVID-19 재난으로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데, 이야기와 출연진 뿐 아니라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도 화제
 - 차가운 맥주에 산더미 같은 치킨, 주인공들이 맛있게 치킨을 베어 물고 건배하는 「사랑의 불시착」의 한 장면
 - 드라마에 나오는 BBQ 올리브치킨은 전 세계 25개국에 25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점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와타미홀딩스가 BBQ 올리브치킨 카페를 운영함
 - 도쿄도 내에는 오오타구, 시부야구, 아다치구에 3점포가 있음
 - 와타미 올리브치킨 영업부의 테라니시 유이치 씨에 의하면, 5월 대형 연휴 무렵부터 손님이 증가했다고 함
 - 자숙하는 동안 한국 드라마가 열풍이 불자 연예인들이 가게를 SNS 등으로 올리며 입소문을 탔음
 - 세련된 카페 스타일로 2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삼은 것도 주효했으며, 전년대비 약 1.5배의 매출이라고 함
- 마이쓰루항-한국-러시아 국제페리 항로개설(마이니치신문, 20.9.18)
 - 교토 마이쓰루항과 한국 포항 영일만항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주1회 연결하는 국제 페리 항로가 개설되어 제1편이 9월 17일 교토 마이쓰루항에 입항
 - 당장은 화물만 취급하지만 COVID-19 감염 확대 방지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경우 여객도 나르는 것을 목표로 함
 - 취향한 것은 이스턴 드림호로 한국의 서울에 본사가 있는 두원상선이 운항함
 - 환영식에서는 타다미 료조 시장이 2011년 7월, 교토부와 함께 한국 포항시와 「경제 교류 추진」 협정을 체결,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을 회상하며 「여러 장애를 딛고, 간신히 염원했던 오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 행사에 앞서 타다미 료조 시장은 포항시의 이강덕 시장과 온라인으로 회담했음
 - 타다미 시장은 이 국제 페리를 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맥으로 하고 싶다고 하며 교토 마이쓰루항과 포항 진흥부국과의 집합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환 체제의 구축, 두 도시에서의 관광 세미나 개최, 국제 페리를 이용한 청소년 교류를 제안했음
 - 이에 이 시장은 모두 동의하며 「코로나가 수렴되면 두 도시 사이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해 진다. 페리 운항으로 돈이 될 만한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 두 도시에서 노력해 나가자」고 응답했음

- Zetta는 한국 마스크 대기업과 제휴해 연내 현지 생산을 시작해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함(닛케이신문, 20.9.20)
 - 도쿄공업대학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Zetta(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울여름 바이러스를 포집할 수 있는 나노파이버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기용매와 고전압을 사용하지 않는 안정 생산에 성공했음
 - 숙제를 내준 사람은 마스크 제조업체 에버그린의 이승환 회장으로 코로나 재난 전인 2018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섬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마쓰야마시를 방문했음
 - 종래의 고기능 마스크는 정전기로 바이러스를 잡는 구조로 호흡 수분의 영향으로 단시간에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교체하는 약점
 - 분자간 힘으로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나노파이버라면 섬유가 망가지지 않는 한 효과가 계속되지만, 유기용제로 수지를 녹여 섬유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마스크에는 사용할 수 없었음
 - 에버그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Zetta는 열에 의한 용융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바이러스 포집에 적절한 섬유를 만드는 편성을 찾아내었으며 실험에서는 신형 코로나와 같은 크기의 미립자는 95% 이상 포집했음
 - 앞으로는 에버그린에 생산장치와 기술을 제공해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함
 - 에버그린은 미국과 유럽 등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 한국에서 항바이러스 마스크로서의 지위를 굳혀 장래는 해외전개를 계획함
 - Zetta의 다카하시 미쓰히로 회장은 마스크 외에도 건축이나 물의 정화 자재로서도 나노파이버로 아시아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고 이야기함
- 한국 한화Q셀즈의 일본법인은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를 월정액제로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닛케이신문, 20.9.24)
 - 일본법인 한화Q셀즈재팬(도쿄도 미나토구)이 홋카이도와 간토 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요금은 1개월 1만 5천~2만엔 정도이고 계약기간은 약 10년으로 설정함
 - 신제품인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를 구입했을 경우 수백만엔 정도가 들지만,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입 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한화는 수요 등을 파악한 뒤 홋카이도와 간토 이외 지역에서의 제공도 검토해 나갈 계획
 -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발전한 전력을 축전지에 모아 두었다가 야간에 효율적으로 환경을 배려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재해 등으로 정전됐을 때에도 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잇따른 대형 태풍으로 가정의 방재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화는 축전지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음